

상하이 엑스포 배울 것 버릴 것



폐막을 40여일 남겨둔 중국 상하이 엑스포 중국관 전경. 박람회장(5.28km) 한 복판 2만㎡의 부지에 69m 높이로 세워진 중국관은 한국관과 함께 중국인들이 가장 기쁘고 싶어하는 인기 국가관 중 하나다.

천편일률 지루한 콘텐츠... 볼거리 늘려라

폐막을 40여일 남겨둔 중국 상하이 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것 외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전남도와 여수시엔 선행 모델이자 반면교사로서 배울 부분이 적지 않다.

◇지역 축제 탈피해야=상하이엑스포는 6개월간(5월1일~10월31일) 관람객 7000만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막 이후 146일째를 맞는 23일 현재 549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연일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루 평균 37만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관람객 수만 본다면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이들 관람객 대부분이 내국인들이라는 점에서 '중국만의 축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입장객의 80~90%가 중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객 대부분이 내국인이다보니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배려도 소홀하다. 공황에 전용 창구를 만든 게 고작이다. 외국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는 커녕 전시장 입구 검색대나 관광 안내소에서도 의사 소통이 힘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과 달리 국내 관광객이 한정된다. 박람회가 '세계의 경제올림픽'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적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수박람회가 해외에 한국 및 여수의 이미지를 알리고 개선하는 무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객 80~90% 중국인...외국인 배려 소홀 여수엑스포 해양·관광 투자 계기 만들어야

◇콘텐츠 다양화도 과제=상하이엑스포 전시장을 찾는 대부분의 관람객은 광범한 전시장을 둘러보는데도 1~2시간 줄을 서야 입장이 가능하다. 기다림이 큰 만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전시관의 콘텐츠는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해 관람객들을 오랜 시간 전시관에 머무르게 하기가 쉽지 않다.

매일 2~3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한국관의 경우 1층 필로티 공간에서 매일 상설 공연을 펼치고 2층 영상관

(Chorus City)에서 12분짜리 영상 뮤지컬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3D TV와 터치 스크린을 활용한 첨단 IT 기술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상당수 전시관은 빛, 음향, 전기를 이용한 영상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터치스크린을 통한 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다. 평일 입장료(160위안·한화 2만7000원 정도)에 비해 볼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따라 여수박람회 경우 관광객들

을 불러모을 '킬러' 콘텐츠와 상품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박람회 핵심전시시설인 바다전시장 'Big-O'와 레이저·화염·불꽃 등 멀티미디어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대규모 해상 야간쇼를 짜임새있게 추진해 박람회 기간 내 최고의 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관람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관광투자 계기로 삼아야=상하이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전세계에 '물류·금융의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상하이에 대한 해외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엑스포가 열리는 푸둥 지역은 상하이시 외곽에 위치, 한때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다. 1930년대부터 철강, 수자원, 방직, 조선 등의 공장과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던 공업지역이자 저소득층 가구들이 무허가 판자촌을 지어 살던 곳으로,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돋움했다.

여수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에 맞게 이번 박람회를 심분 활용해 해외 관람객들에게 한국 및 여수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한편, 해외 각국의 내국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 지구로 '환골탈태'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정 박람회 여수, 상하이 엑스포 보다 기간 짧고 주제 특화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 못지 않게 영향력이 큰 국제행사로, 참여 국가들의 경제 기술 문화를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상하이엑스포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한 '등록박람회'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중국이 처음 치른다. 192개 국가와 5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며 예산 관람객은 7000만명(해외여행객 500만명(7%)). 역대 최대다.

BIE는 각국의 신청을 받아 박람회를 공인해주는데 등록(Registered)박람회와 인정(Recognized)박람회로 나뉜다. 등록박람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기간은 6주~6개월이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이에 비해 인정박람회는 2개 등록박람회 사이에 열리며, 기간은 3주~3개월로 짧다. 주제도 특화돼야 한다. 여수박람회는 인정박람회다.

병역 기피·누나 대학 특혜 지원·증여세 탈루 의혹

김황식 청문회도 가시밭길 예고

김필식 총장 등 증인 채택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험난한 청문회'가 될 조짐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거친 지난 두 차례(2005년, 2008년) 인사청문회보다 더 강도 높은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은 병역 기피, 누나 대학 특혜 지원,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발표 연기, 선거법 위반 등이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쟁점은 김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 김 후보자는 지난 1972년 시력 문제로 인해 병역 면제를 받은 바 있다.

창조한국당 이윤경 의원이 제기한 누나 대학의 국고지원 특혜 논란도 청문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김 후보자 누이 학교(동신대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금액에 대해 일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고 반박했고, 동신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다. 대학과 정치를 연루시켜 지방 사립대학의 의지를 꺾지 말라"고 정면 대응한 바 있다.

또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2월에 친형인 김홍식 장성군수가 주최한 '장성아가데미'에서 강연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 선거일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 재직 시절 8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입한 과정과 누나에게 빌린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발표 연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23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과 세금탈루 의혹, 사돈 회사를 위한 감사납음 의혹, 부적절한 처신 등에 대해 또다시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2005년 대법관,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큰 하자가 없으며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 흡집내기식 정치 공세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 김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 허기택 동신대 산학협력담당장 등 3명을 증인으로, 김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검증에 관한 11명의 참고인 채택인을 의결했다.

은진수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김필식 총장과 허기택 산학협력담당장은 동신대에 대한 국고 특혜지원을 규명하기 위해 각각 증인으로 선정됐다. 또한 김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전향수 총복지방부청 고acker지원과장, 문병민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광현우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송인성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김영진 충남대병원 내분비내과과 의사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산가족 상봉 장소·규모 집중 조율

오늘 개성서 남북 실무접촉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직접자 실무접촉이 24일 오전 10시에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다.

남측에서는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김의도 대한직접자사(한적) 남북교류실행위원(수석대표)과 김성근 한적 남북교류팀장이 대표단으로 나설 예정이다.

북측에서는 조선직접자회 중앙위원회 박용일 단장과 박형철 대표 외에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수석대표), 주광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리경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 중 2명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앞서 17일 실무접촉을 열어 상봉 일정(10월21~27일)과 생사확인 의뢰 등 사전 준

비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점근을 이뤘지만, 상봉 장소와 규모에 대해 이견을 보여 추후 실무접촉을 하기로 했다. 당시 북측은 상봉 장소에 대해 '금강산지구 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 측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봉장소로 요구했다.

상봉규모에 대해서도 우리 측이 100가족 이상을 주장했지만, 북측은 전례대로 100가족을 고수하며 맞섰다. 이에 따라 24일 접촉에서 남북은 상봉 장소와 규모에 대한 이견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여 합의의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금강산 상봉장소 문제에 대해 별도로 협의해야겠다고 하면 우리 대표가 그 부분에 관해 당국의 위임을 받았으므로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며 "상봉 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땡큐죠

빠지는 머리칼과 개수에 신경 쓰이면 효과가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18세~65세 남성) 170명 대상 임상시험 결과, 모발 개수와 굵기가 증가되어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

■ 마이녹실 임상결과

참여자의 92.9%가 효과 확인

탈모증 유형	효과 확인률
매우호전	2.94%
호전	27.65%
약간호전	62.35%
기타(호전없음, 악화)	7.06%

전국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마이녹실 5% 24주간 임상시험 결과, 158명 즉 92.9%가 호전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우호전 5명(2.94%), 호전 47명(27.65%), 약간호전 106명(62.35%)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 대한 5% Minoxidil 의용액의 공개 다기관 임상연구(제4상 임상시험,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 대한 피부과학회지 2009년 3월호 발표

■ 임상연구 참여기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경복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관동대의명지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상 가나다 순) 14개 대학병원 피부과 공동참여

바르는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1일 2회 4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십시오.

검색어: 마이녹실

제품 문의 | 080-024-5525
02-2600-3884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청문회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와의 상의하십시오.]